

# 길

김기림

나의 소년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 
꼬부라져 돌아갔다.

본문바탕체 [b]:mhmj

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.  
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 빛에 호저 떼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 
노을에 함북 자주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.

돋음체 [b]:mhgt

궁체:mhgs

그 강가에는 봄이, 여름이, 가을이,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땡겨갔다.  
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모래들과 그리고 어득은 내 마음이  
남아서 몹서리켰다.

궁틀림체:mhgh

그런 날은 향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.

혼민정음체:mhmg

할아버지도 언제 난 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  
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, 돌아오지 않는 제집애,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 
것만 같애 멍하니 기다려 본다.

쓰기틀림체:mhph

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준다.

쓰기체:mhpn